

[로스쿨 소식]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첫 집행부 선출 - 부의장에 정상현, 재무국장 남현경, 대외협력홍보국장 오진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장 원호선)는 지난 4월 29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전국 로스쿨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집행부 설치와 '합격률 보장 촉구 시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 의장과 함께 일할 체계적인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의장을 제외한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부의장은 정상현(아주대 로스쿨)씨, 재무국장은 남현경(서울시립대 로스쿨)씨, 대외협력홍보국장에는 오진주(이화여대)씨가 각각 선임됐다. 보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강훈(제주대 로스쿨)씨도 집행부에 합류했다.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또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로스쿨 대표단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성명서 발표와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할 계획이며, 단체시위(7월2일 예정) 진행 여부에 대한 재학생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협의회 회칙개정 △변호사 시험장 확대 방안 △변시 합격률 공개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여부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 등의 논의가 자정무렵까지 이어졌다. 이날 회의 내용은 법학협 공식사이트(www.klssa.net)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